

70주년 맞는 Y연맹

강문규 총무

『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 민운동개를 위해「제2의 물 산장려운동」을 펴나갈 계획 입니다』오는 27일로 연맹창 립 70주년을 맞는 대한 Y MCA 같은가출주의 애기다.

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. 것은 부인할 수 없다.

제2의 물산장려운동

청년단체 육성에 힘써

『또하나 중요한 사업은 청 소년 단체육성 모범제정운동입 니다. 현재 청소년단체는 정 부주도의 특별법으로만 운 영되는 모수를 안고있어요』

입제하에서도 물산장려운동 은 있었다. 그러나 그때시는 민족자본형성이 목표였지 오 늘날처럼 국내독점자본에 의 한 구조적 모순은 심각하게 노출되어있지 않았었다. 그런

의미에서 현재 Y연맹이 별 이라는 물산장려운동 구조속에

육성을 위한 모범도 없이 범 략할 정도의 규제법만 복잡

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육성모범 도없이 특정 청소년단체를 지 원하는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그 단체에게만 특혜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. 이런 무질서한 현실은 민간 청소년단체의 건전한 사회교 육적 역할에 많은문제를 야 기시키고있다. 『YMCA는 계층운동적인 사 회운동을 지향하지 않아요. 앞으로「개방된 형태의 교 회」로써 신학적 자기정립이 라는 대내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고 말하는 강총 무는 연맹창립 70주년을 맞 으면서 그동안의 Y운동의부 진을씻고「제구실」하는 Y로써 새로운 시민운동의 주도



체가 되겠다고 거듭강조한다.